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신약성서 맥잡기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서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린이집(원장: 김문주 선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오카리나 동호회, 브라스 밴드 동호회, 영화 동호회 등에 동참해주세요.

담임목사는 중구용산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14-15)의 기도 모임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 7월 27~29일 태안 연포교회, 중고등부 - 8월 3~5일 보은 월송교회, 청년부 - 8월 16~23일 일본 생명평화역사 기행)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즉시 실천하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로 같은 현실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은 등불을 들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번거로워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달래줍니다.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어 암담할 때, 주님께서 친히 노래가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불신과 냉소의 찬 기류가 감돌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속도와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뒤안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뒤쳐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주십시오. 삶이 편안할수록 마음은 더욱 낮은 곳에 두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김근중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배근수 김금순 백묘현 윤미경 배삼순 권호천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김순복 전영웅 정미경 조문규 진정숙 양재성
 임미심 권미숙 황지현 손성현 왕성환 강순배 김재흥 최희영 전세종
 오정숙

월정현금:

고속이 김남중 오복순 김명순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문금석 김극
 박준희 이기분 이성범 정두리 조순덕 최철수 광권희 구자훈

감사현금:

김재흥 이인섭 전성오 김용진 박호선 박병구 고은숙 조항범 왕성환
 강순배 배부례 오래된미래 무명6

녹색꿈현금:

고속이 김인걸 문영혜 이한림 김명희 송희원 송채원 송우석 김순복
 (누계 : 1,130,000원)

	장혜숙 노순옥 임정자 문영혜 안정숙 박홍재 박효선 최숙화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백혜숙 송양진 이영란 박혜경	장혜숙 정경례 임정자 박경선 박애순 광권희 허정윤 권미정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정옥영 유경순 박미영 최영혜	연합속회	심
--	---	---	------	---

나는 알고 또한 믿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욕망과 갈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나는 알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오뇌와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불안과 허망의 잔을
피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믿고 있다.

이 욕망과 고통과 허망 속에
인간 구원의 신령한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날
그 꿈의 동산 속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나는 또한 믿고 있다.(구상)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인생 길에서 맞닥뜨리는 고통과 슬픔과 노고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삶이 힘겹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을 맘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어 하늘의 뜻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김훈동 권사	기도/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곽관희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영란 집사

7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박두석 곽혜자 장혜숙 이권화
	헌금위원	한상익 박애순(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하루의 노고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아침 첫 시간이 지난 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노동입니다. “사람은 저녁때까지 나가 일하고 수고하느니라”(시104:23). 그리스도인 가정은 대부분의 경우 긴 하루 노고의 시간을 따로따로 보냅니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각기 다른 두 일입니다. 기도가 일로 방해받아도 안 되고 일이 기도로 방해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옛 세 동안 일하고 이레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쉬면서 거룩한 날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기도와 노동이라는 이중의 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간은 대부분 일하느라고 보냅니다. 기도와 일, 이 둘은 서로 범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은 또한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인 것이 밝혀집니다. 하루의 일과 부담이 없이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일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둘의 구별이 밝혀질 때에 비로소 그 통일이 드러납니다.

노동은 사람을 사물의 세계에 몰입하게 합니다. 노동은 그에게 무엇이든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의 만남의 세계를 떠나 비인격적인 사물의 세계, ‘그것’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 만남으로 우리는 자기 집착에서 풀려나서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의 세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얽혀 있는 모든 것과 자기 추구를 떨쳐 버리게 하려고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완성되는 때는 인간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때이며 인간이 일과 현실과 과업과 사물에 몰입할 때뿐입니다. 일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일로써 제한을 받는 것을 터득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일은 그를 육체의 안일과 게으름에서 건져주는 방도가 됩니다. 사물의 세계에서는 육체의 요구는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다만 그리스도인이 ‘그것’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데에 이를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 만들어 내라고 명령하시고, 이로써 자기 집착에서 풀려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자신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과의 대결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격파되었습니다. 기도와 일의 통일 곧 하루의 통일은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의 ‘그것’의 배후에서 하나님 곧 ‘당신’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끊임없는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살전5:17). 이리하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 일 한가운데로 뻗어 들어갑니다. 기도가 온 하루를 둘러쌉니다. 그렇다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요구하고 긍정하고 일을 엄숙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일과 노동은 모두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그것도 주어진 과업에서 항시 벗어나 나간다는 그릇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그것’을 뚫고 은혜로우신 당신께 이르는 참 돌파를 뜻합니다. “그대들의 말과 행실로 하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골3:17).

이같이 얻은 하루의 통일로 하루의 전 생활에는 이제 질서와 훈련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침 기도에서 추구되고 발견되며, 일에서 확실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시간의 낭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일에 임해서 보이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성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고 남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방종은 흔히 아침 기도를 거르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의 시간을 질서 있게 배당하는 일은 기도에서 우리날 때에 그만큼 더 확실하게 됩니다. 하루의 노동에 따라오는 유혹은 하나님을 향해 돌파해 들어감으로써 극복됩니다. 일에 직면해서 해야 하는 결정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할 때 훨씬 간단하고 쉽게 됩니다. “그대들의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서 우리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사람을 향해서 하듯 하지 마십시오”(골3:23). 기계를 다루는 일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깨달아서 하게 되면 인내력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힘도, 그 필요한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 더 솟아날 것입니다.